

치매 환자 스마트 건강·돌봄 확대 남원시, 춘향제·동행축제 협력

남원시, 올해 100가구 추가... 총 300가구 24시간 스마트 건강 돌봄 서비스 제공

남원시는 치매 환자 중 홀로 지내거나 부부가 치매인 가정을 최신 기술을 활용해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통합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 중인 치매 환자 스마트 건강·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를 100가구 확대했다.

사업은 2023년 동 지역 100가구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먼 지역 100가구를 추가해 200가구를 관리 화재감지와 방범지원 26건, 응급 상황 672건을 대응해 치매 환자 가정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치매 환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확보에 나서 작년 여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하며 국비 3억2천5백만원을 확보하고 올해 100가구를 추가하여 2025년에는 총 300가구에 24시간 스마트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치매 환자 가정에 스마트 장비 10종을 설치하여 환자의 일상



남원시는 치매 환자 스마트 건강·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를 100가구 확대해 24시간 스마트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을 분석하고 돌발상황을 예측하여 대응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개인별 맞춤형 투약 관리와 건강관리, 비대면 인지훈련을 통해 치매 악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거나 쓰레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대상자와 보건소 간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거나 119, 112 신고를 통해 기관

간 합동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보호자에게도 문자 알림이 동시에 전송되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설계된 서비스로, 시는 서비스 희망자를 올 6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으며, 서비스 신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치매안심과(063-620-7704, 7725)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대상자의 평소 외출 시간을 고려하여 장기간 부재로 인한 실종 위험이 예측될 경우, 남원시 CCTV 관제센터와 연동하여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서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에도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고미주 치매안심과장은 “이 사업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치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환자 가족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故 백은 김상열 선생 송덕비 제막식 개최

故 백은 김상열 선생 송덕비 제막식이 19일 생치면 둔전리에 위치한 훈몽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순창읍 순창군의회 의장, 윤준식 생치면 민회장, 송진원 백은장학회 이사장, 유족 대표인 장남 김병성을 비롯해 관내 사회단체장과 둔전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이번 송덕비 건립은 김상열 선생이 지난해 12월 89세를 일기로 별세하자, 생치면민회를 중심으로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 2,0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해 지난 2월부터 추진됐다.

최영일 군수는 축사에서 “울산김씨 종중과 든든한 재경향우 원로로서 늘 따뜻한 애향심과 탁월한 혜안으로 순



창군 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상열 선생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면서, “저도 선생의 인재 양성 정신을 이어받아 내실있는 교육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열(金相烈, 1935~2024) 선생은 생치면 중안마을 출신으로, 조선 중기의 대학자인 하서(河西) 김인후(1510~1560)의 14대손이다.

젊은 시절 상경해 병면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후 하서 선생의 뜻을 계승하고자 하서학술재단과 수당재단의 이사를 역임하며 후학 양성과 장학 사업에 헌신했다.

특히 2005년,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통해 생치면 둔전마을에서 조선시대 김인후 선생이 운영했던 훈몽재 옛 터가 발견되면서, 김상열 선생은 자신의 인접 부지를 기부해 2009년 훈몽재 중건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2016년에는 사재 3억원을 기부해 ‘백은장학회’를 설립하고, 다양한 장학 사업을 통해 순창군 인재 양성에 힘썼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에는 순창군민의 장 ‘애향장’을 수상한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20년 방치 ‘효산콘도’ 매각 완료

남원시는 20년째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남원 효산콘도에 대해, 3월 17일 공매대금 8억3천만원을 최종 납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사용승인을 받은 효산콘도(지상 9층, 지하 2층, 객실 284호)는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숙박업소로 자리매김하는 듯하였으나, 경기불황과

모기업의 부도로 지방채 체납이 누적되어왔다. 20년이 넘도록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관광도시 남원의 이미지를 크게 해치고 있었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인수위 단계부터 효산콘도 활성화를 주요 현안 사업으로 선정하고 효산콘도의 투자장점을 부각하며 적극적으로 재공매

를 추진해 새 주인을 찾게 된 것이다. 효산콘도는 그동안 4차례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잔금 미납 보증금으로 총당된 세수가 11억원에 이르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으며, 이번에 매각이 결정된 (주)코리아시티는 수도권지역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도심 미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라이브커머스 활용 농·특산물·소상공인 제품 소개·판매

남원시는 춘향제와 동행축제가 협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라이브커머스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농·특산물과 소상공인 제품을 전국에 홍보·판매할 계획이다.

춘향제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 축제로, 매년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 행사이며, 올해는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동행축제와 함께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 쇼핑 LIVE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부스를 운영하여 지역 농·특산물과 다양한 제품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위해 전문 쇼호스트를 섭외하고, 현장 방송 지원 및 장비 임대를 통해 체계적인 방송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꿈의 오케스트라 이어 꿈의 무용단 탄생

임실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인 임실문화원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교육의 모범사례로 주목받는 꿈의 오케스트라에 이어 꿈의 무용단을 운영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꿈의 무용단 운영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꿈의 무용단은 지역 거점기관인 임실문화원(원장 박정우)에서 5년간 국비 4억원과 군비 1억1,000만원 등 총 5억1,0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 50%를 포함, 지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총 30명의 단원을 모집하여 꿈의 무용단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실문화원은 이미 2022년부터 4년째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해 오고 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2021년 공모사업

으로 선정, 국비 9억을 확보해 2022부터 2027년까지 국비 9억원과 군비 5억원 등 총 14억원의 예산이 지원, 운영되고 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관내 12개 초·중학생 80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매년 세 차례의 정기연주회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수준급 공연을 선사해 왔다.

군은 올해 선정된 꿈의 무용단을 통해 사회·문화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교육으로 지역 문화예술 교육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음악과 무용 활동 경험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함께 협력해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소방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긴급구조대책 추진

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내달 6일까지 5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한다.

임실소방서는 지난달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5주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해빙기 위험지역 사고예방 안전순찰 △수난사고 우려 지

역 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훈련 강화 △재난 대비 긴급대응태세 확립 등이다.

김상곤 서장은 “해빙기 기간 각종 수난이나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순찰과 훈련을 통해 임실군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농기센터, 농산물가공 창업코칭 교육생 모집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농산물가공 및 창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창업코칭(기초반) 교육생을 지난 17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교육은 4월 21일, 23일, 24일 총 3회(1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가공창업 트렌드 변화, 농식품가공창업지도, 가공식품 개발전략, 식품위생관리 전반을 다룬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시제품 생산과 개발을 할 수 있는 심화교육 과정의 자격이 주어지며 창업 후 농산물 가공 교육센터에서 농산물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현재 OEM방식으로 농산물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운영 방식을 공유 주방 운영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공유 주방이란 여러 업체나 개인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기존 위탁생산 방식에서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을 의미하며, 전환을 통해 공유주방에서 업체가 본인만의 레시피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고, 공장구축 및 운영에 대한 초기자금을 절감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예상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1억원 넘어

남원시가 3월 14일을 기준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중심의 답례품 58개를 발굴해 제공하고 있으며, 출향인 및 관내 기관·단체·기업 대상 방문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기부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 운영, 시정 소식지 및 감사 서한문 발송, 각종 이벤트 등 기부자 예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부금을 활용하여 남원시 청소년 인재양성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